

예천의 용궁지역 누정과 누정시 고찰*

- 역대 시문을 중심으로 -

최 금 자**

차 례

- | | |
|---------------------|----------|
| 1. 들어가며 | 1) 공적 공간 |
| 2. 용궁 지역의 누정과 작품 개관 | 2) 사적 공간 |
| 3. 용궁 지역 누정시 양상 | 4. 나가며 |

국문초록

본고는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 지역을 대상으로, 조선 시대를 중심으로 축적된 누정과 그 공간을 배경으로 창작된 역대 시문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축산승람』과 『예천누정록』을 비롯한 한국고전종합DB에 수록된 시문을 집성하여, 문헌상 확인 가능한 55개소 중, 현전 시문이 확인되는 34개소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용궁 누정의 건립 주체, 위치, 공간 성격에 따라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으로 분류하고, 각 공간에서 형성된 문학적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적 누정은 관아와 객사에 부속된 행정적 공간이면서도, 시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B5A17087909)

**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강사

문에서는 반복적으로 ‘閑’의 정서가 부각되었다. 이는 지속적 공무의 압박 속에서 잠시 확보되는 한가로운 순간을 자연과 결부하여 형상화한 것으로, 지방관, 방문 관료, 지역 문인 등은 차운과 연작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부취루, 수월루, 임청각 등에 집중된 차운 양상은 공적 공간에서 문학적 연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적 누정은 사족 개인의 거처, 독서, 은일, 교유 공간으로 조성되었고, 청원정, 영련당, 매죽헌 등에서는 선현의 인격과 풍류를 기리고 세대를 이어 전승을 강조하는 한편, 삼의정, 이요정 등의 작품에서는 자연을 통한 흥취와 귀처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원운과 차운을 통한 문인 네트워크의 확장은 사적 누정에서도 중요한 문학적 관습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용궁 지역의 누정은 단순한 경관 장식이나 풍류의 장소가 아니라 중층적으로 이루어진 문학적 장소로 자리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지역 문학의 심층적 고찰은 물론, 장소와 문학의 관계를 탐구하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주제어: 예천, 용궁, 누정, 한문학, 축산승람, 누정시

1. 들어가며

본고는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 지역의 누정과 그 공간을 배경으로 창작한 역대 시문을 대상으로 서정적 지향과 문학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용궁은 ‘竺山’, ‘園山’, ‘龍州’ 등으로 불렸으며, 신라 시대에는 축산, 원산으로, 고려 성종 14년(995)에는 용주로 개칭되었다가, 현종 3년(1012)부터 ‘용궁’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¹⁾. 신라에서 조선까지 다양

1) 『新增東國輿地勝覽』卷25, 「慶尙道-龍宮縣」; 한국고전종합DB.

한 행정 명칭이 변화해 왔다. 지리적으로 용궁은 雄州인 尙州에 인접해 있으면서 문화적인 교감을 계속하였으며, 안동 등 경북 북부 지역의 인사들이 도성을 오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에 있던 중요한 고을이었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은 사족 네트워크의 형성과 유지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으며, 교유와 시문 창작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기반이 되었다.

또한 용궁은 시대에 따라 州-郡-縣으로 행정적 위상이 변동하였으나, 독립적 고을로서의 정체성은 지속되었다. 그러나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예천군 예하면에 편입되고, 일부 지역이 문경과 의성 등으로 분할되면서 지역적 단위의 연속성이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용궁 관련 문학 자료 역시 문집, 읍지, 개별 기록으로 분산되었고, 체계적인 자료 축적과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역대 시문을 중심으로 한 누정 연구의 필요성은 이러한 자료 환경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樓亭’은 樓, 亭, 臺, 閣, 榭, 廊, 殿, 軒 등 외형적 건축 형식을 포괄하는 용어이나,²⁾ 이를 단순한 물리적 구조물로 한정하지 않는다. 용궁지역의 누정을 배경으로 문학적 생산과 교유가 지속되는 문학적 거점임을 밝힌다. 우리나라 누정에 관한 최초 기록은 『삼국유사』에 보이는 ‘天泉亭’이며, 이후 백제와 신라 시대의 여러 누정, 고려시대의 사례들을 통해 그 역사가 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시기 용궁 지역의 누정은 구체적 기록이 드물고, 조선 초 全元發의 淸遠亭이 현존 기록상 가장 오래된 용궁 누정으로 전해진다. 조선시대에 와서 누정은 다수 건립되었으며, 용궁은 지리적 요충지이자 교통로의 중심지로, 문인과 사대부의 왕래가 빈번하여 누정을 무대로 한 시문 창작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용궁 누정 연구는 읍지나 답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 개괄적 소개에 머물렀다. 예컨대 『예천누정록』³⁾

2) 박종우, 「16세기 누정의 공간적 특성과 누정제영의 문학사적 의미」, 『우리어 문연구』 32, 우리어문학회, 2008, 258-259쪽; 이상 누정의 개념에 대한 이해는 다음을 참조하였다. (計成 저, 김성우·안대회역, 『園冶』, 예경, 1993, 84-87쪽.)

3) 김종배, 『예천누정록』, 예천문화원, 예일출판사, 2010.

은 용궁의 현존 누정 10개소를 소개하는 데 그쳤으며, 문학작품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최근 읍지 『축산승람』⁴⁾에 수록된 한시⁵⁾를 다루었으나, 지역 누정시 전체를 통시적으로 검토하지는 못했다.

본고는 용궁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가장 포괄적 자료인 『축산승람』과 『예천누정록』의 정리 자료를 토대로, 문헌상 확인 가능한 55개소 중, 현전 시문이 확인되는 34개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누정의 건립 배경, 관련 인물, 시문의 양상을 검토하고, 용궁 누정시의 정서적 층위와 문학적 본질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용궁 지역을 포함한 영남 지역 누정문화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 지역 누정의 배경적 고찰로 고지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위의 고지도⁶⁾는 현재의 예천군 유천면 일대가 아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의 독립된 고을이었던 용궁현의 범위를 보여주고 있다. 왼쪽

4) 권경열·최연숙 역, 『축산승람』, 한국국학진흥원, 영남사, 2018.

5) 최금자, 「예천읍지 『竺山勝覽』에 소재한 漢詩와 그 성격」, 『동양한문학연구』 66집, 동양한문학회, 2023.

6) 『고지도를 통해 본 경상지명연구(2)』, 국립중앙도서관, 2018, 13면, 36쪽.

지도를 통해 용궁이 낙동강 상류에 위치하고,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적 구조이며, 또한 도성을 오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교통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과거 용궁현의 전체적인 지세와 행정적 경계를 보여주며, 이를 통해 누정문화가 발달할 수 있었던 지리와 환경적 토대를 이해할 수 있다.

오른쪽 지도는 용궁현의 중심부인 읍치를 상세하게 묘사한 것으로 공적 공간으로 분류한 주요 누정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491년 현감 허민이 객사 곁에 세운 浮翠樓, 용궁의 중심부에 위치했던 水月樓, 그리고 훗날 객사 곁으로 이진 된 萬波樓 등 관 주도의 누정들이 읍치 내에 어떻게 배치되었는지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오른쪽 지도는 용궁의 행정 및 사회적 심장부를 보여주며, 그 안에서 공적 누정들이 어떻게 소통과 문학 생산의 무대로 기능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처럼 고지도는 용궁의 행정 체계와 사회적 중심성을 보여주는 시각적 지표이자 공적 누정이 공간적 한계를 넘어 문학적 담론이 생성되고 집적되던 핵심 무대였음을 시각적으로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2. 용궁 지역의 누정과 작품 개관

본 장에서는 『예천누정록』과 『축산승람』에 수록된 누정을 공간의 성격에 따라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으로 분류하였다. 공적 공간은 관청,

7) 누정의 건립 주체에 따른 분류에서, 관청 주도일 경우는 官家 누정, 관청 누정, 公樓, 官設型 누정, 官設 누정 등으로 표현하였고, 개인 주도일 경우는 私家 누정, 민간 누정, 私樓, 私設型 누정, 私設 누정 등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 외 사찰 누정의 경우는 私設型 누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관청 주도일 경우 공적 공간, 개인 주도일 경우 사적 공간으로 나누었으며, 사찰 누정의 경우는 제외하였다.

향교, 서원 등 공식 기구에 부속된 누정을 지칭하며, 사적 공간은 사족 개인이 거처와 독서, 또는 휴식과 은일 공간을 목적으로 건립한 누정을 말한다. 즉 공적, 사적 공간은 소유 주체가 아니라 기능적 사용 맥락에 따른 분류하였다.

시문 자료는 각 누정의 명칭을 한국고전종합DB에서 개별 검색하여 해당되는 작품을 확인하고 정리하였다.⁸⁾ 다만 55개소 가운데 작품이 남아 있지 않는 곳은 표에서 제외하였다.⁹⁾ 그 결과 34개소 누정과 작품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누정명, 창건주, 작가와 현전 작품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예천 용궁지역 누정과 작품¹⁰⁾

번호/ 공간	누정명	창건주	작가와 현전 작품	비고
1	萬波樓		全五倫(1631-1720) 기문 蘇鎮夏(?-?) 1제	현재 용궁면 읍부리 산 402-1
2	공적 공간 浮翠樓	許珉(?-?)	洪貴達(1438-1504) 기문 姜渾(1464-1519) 1제 李滉(1501-1570) 1제 黃俊良(1517-1563) 2제 3수 洪聖民(1536-1594) 1제 文敬全(1457-1521) 4제 6수 金兌一(1637-1702) 기문	1491년 허민이 창건. 홍귀달이 이름을 지음.

8) 작품 가운데 한국고전종합DB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누정의 현판에는 실려있는 작품들이 다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므로, 추후 각 누정을 직접 방문하여 누정 현판에 실린 누정시를 확인하여 표의 내용이 보다 명확하게 보완이 필요가 있다.

9) 『예천누정록』과 『축산승람』에 수록된 누정 55개소 가운데 작품이 전하지 않는 누정은 다음과 같다. 洗心樓[鄉校의 門樓], 風遠樓[箕川書院의 문루], 敬榆亭[安漣(1703-?)], 洛社亭[李東佑(?-?)], 讀傲亭[鄭翊夏(?-?)], 獨松亭[權學中(1768-1816)], 晚岡亭[李誼(?-?)], 晚歸汀[崔潤敬(?-?)], 望洛堂[尹涉(?-?)], 伴蒙窩[尹備(?-?)], 月松亭[張翎(1543-?)], 龍巖精舍[李天燮(1730-1807)], 栗湖亭[李胤培(?-?)], 銀溪亭[張漢輔(?-?)], 疑秋亭[安善徵(?-?)], 長碧軒[高彦洙(?-?)], 竹湖亭[尹涉(1550-1624)], 芝圃書室[鄭榮邦(1577-1650)], 鶴江亭[趙昌(?-?)], 合江亭[洪好約(1577-1663)] 등 모두 20개 소이다.

3		水月樓		金守濶(1410-1481) 1제 徐居正(1420-1488) 1제 鄭羽相(1765-1630) 1제	객사의 남쪽
4		臨淸閣	李思質 (1705-?)	신헌(?-?) 序 高用厚(1577-1652) 1제 2수 李思質 2제 3수 宋可相(?-?) 1제 權震應(1711-1775) 1제 鄭宗 (1701-1776) 1제 李敏輔(1717-1799) 1제 沈潮(1694-1756) 1제	이사질이 1754년 축산에 부임하여 지음.
5	사적 공간	曲江亭	李仲陽 (?-?)	河沆(1538-1590) 1제	20세기초 용궁현 신평동
6		觀物堂	潘冲 (1508-1584)	鄭琢(1526-1605) 1제 2수	20세기초 용궁현 달계리
7		蘿菴亭	李文興 (1423-1503)	李晚燾(1842-1910) 上梁文	현재 개포면 입암리 산 5
8		洛濱亭	鄭止 (1563-1642)	鄭寅學(1839-1919) 기문	현재 풍양면 우망리 359
9		南塢亭	張信立 (1626-1700)	柳東濬(?-?) 기문	현재 지보면 마산리 911
10		綠楊亭	全夢奎 (1524-1593)	洪萬績(?-?) 序記	20세기초 용궁현 가야리
11		東山小窩	鄭必奎 (1760-1831)	원운 1제	20세기초 용궁현 삼강리
12		萬樹亭	高命世 (1618-1671)	원운 1제	현 문경시 영순면 왕태리 20세기 초 건립
13		晚竹亭	金在憲 (?-?)	원운 1제	현재 지보면 대죽리 530
14		梅塢新亭	鄭榮後 (1569-1641)	鄭允穆(1571-1629) 1제 2수	현재 풍양면 우명리 334
15	梅竹軒	蔡文徵 (?-?)	洪汝河(1620-1674) 1제	20세기초 용궁현 대죽리	
16	伴鶴窩	安鎮龜 (?-?)	李天燮(1730-1807) 銘	20세기초 용궁현 봉산	
17	三樹亭	鄭龜齡 (?-?)	鄭光弼 기문 鄭榮邦(1577-1650) 2제 3수	현재 풍양면 청곡리 798	

18	三宜亭	高必遠 (1538-?)	원운 1제 權渠(1658-1731) 1제	현재 문경시 이산동, 20세기 초 중건
19	三湖亭	鄭允穆 (1571-1629)	權相翹(1863-1935) 기문	1921에 현재 문경시 영순면 달지리에 그 자손들이 건립
20	賞心軒	李景白 (?-?)	李介立(1546-1625) 1제	20세기초 용궁현 가곡동
21	洗心軒	李圭洪 (1851-1918)	金興洛(1827-1899) 기문	현재 용궁면 월오리 605
22	蘇洲亭	高徽世 (1635-1708)	원운 1제	현재 영순면 왕태리 224. 1919년 후손이 건립
23	頌德閣	權泰通 (1850-1928)	高彦朝(?-?) 銘	20세기초 용궁현 산택리
24	松坡亭	安夢徵 (1611-1654)	원운 1제 安昌烈(1847-1925) 기문	현재 용궁면 월오리 1069
25	守拙軒	全相武 (?-?)	원운 1제	20세기초 용궁현 가야리
26	巖栖軒	高斗極 (1727-1775)	自序	위치를 알 수 없음
27	暎蓮堂	全纘 (1546-1612)	李滉(1501-1570) 1제 鄭琢(1526-1605) 1제 2수 權文海(1534-1591) 1제	20세기초 용궁현 가야리
28	浣西樓	鄭龜齡 (?-?)	鄭基善(1784-1839) 기문	20세기초 용궁현 완담
29	二樂亭	文瓘 (1475-1519)	尹新之(1582-1657) 1제 金宇宏(1524-1590) 1제 黃暹(1544-1616) 1제 李瑀(1542-1609) 1제	20세기초 용궁현 마전아래
30	自復堂	權時憲 (?-?)	원운 1제	20세기초 용궁현 송라동
31	點离窩	安道徵 (1616-1678)	洪汝河(1620-1674) 銘	20세기초 용궁현 혼전리
32	滄菴亭	李潤壽 (1545-1594)	柳永佑(1850-1934) 기문 李守馨(?-?) 기문	1915년 무이리 소천에 건립
33	淸遠亭	全元發 (?-?)	李滉(1501-1570) 1제 2수 高尙顏(1553~1623) 1제 李惟樟(1625-1701) 청원정별묘 봉안문 文敬全(1457-1521) 2제 3수	현재 용궁면 무이리 379

34	退睡亭	高希允 (?-?)	원운 1제	20세기초 금수 가에 위치
	咸聚亭	權旭 (1556-1612)	趙天經(1695-1776) 1제	1643년 현재 용문면 제곡리 372-2

<표 1>에서 창건 연대는 모두 명확히 기록된 것은 아니나, 창건주와 작가군의 생몰년대를 통해 누정의 형성 시기를 상대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15세기 후반-16세기 전반은 공적 누정이 형성되고 16세기 중반-17세기 전반 가장 많은 누정 창건이 확인되고 있다. 작가군은 15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매우 넓은 시대를 아우른다. 15세기 후반-16세기 말은 홍귀달, 문경동, 황준량, 이황, 김우평, 이우, 고상안, 권문해, 정탁 등이 작가군을 형성하고 누정은 청원정, 부취루, 영련당 등에 집중하고 있다. 17세기 전반-18세기 전반은 홍여하, 이유장, 윤신지, 정윤목, 권구, 정영방 등이 작가군을 형성하고 삼수정, 삼의정, 이요정, 매죽헌 등 사적 누정에 작품이 대다수이다.

문체별로 용궁 지역 누정을 살펴보면 詩, 記, 序, 銘, 봉안문 등으로 정리된다. 문체의 비중은 압도적으로 시가 다수를 차지하며, 기와 서, 기타 문장은 정자 건립 목적과 공간 정체성 부여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다음은 누정을 공적, 사적으로 분류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공적 공간으로 분류되는 누정은 총 6개소가 문헌상 확인되나, 현전 작품이 남아 있는 것은 만파루, 부취루, 수월루, 임청각 등 4개소이다. 이들 누정은 대체로 관아와 객사에 부속된 건물로서 지방관과 방문 인사들의 시문 활동이 집중된 장소였다. 공적 누정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① 부취루는 1491년 현감 허민이 관아 정비 과정에서 신축한 누정이다. 아래 인용문인 홍귀달은 기문에서 부취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10) 『축산승람』과 『예천누정록』을 참고하여 가나다순으로 정리하였다.

용궁 모래내는 맑고 얇으며, 울창한 숲은 남쪽 고을에서 이름이 났다. 내가 어렸을 적에 용궁현 사람 朱氏의 문하에서 공부를 했는데, 강독하다가 틈 날 때면 동반 데리고 산천을 돌아다녔고, 지치면 객사에 들어가 쉬었다. 현은 남산의 북쪽, 북산의 남쪽에 있어서 4면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다. 문을 나서면 흰 비단을 펼쳐 놓은 듯한 맑은 물이 있고, 그 물 건너에는 깊은 숲이 울창하게 있으니, 가히 절경[勝景]이라고 이를 만하다. …(중략)… 弘治 4년(1491)에 陽川 許珣 공이 이 고을의 수령으로 내려와 백성들에게 이로운 것은 흥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해로운 것은 제거하여 백성들이 그 즐거움을 즐기니, 더 이상 일삼을 것이 없었다. 마침내 산천의 승경을 두루 유람하다가 누대에 올라 탄식하기를 “아! 이것이 이른바 ‘어울리지 않는다.[不稱]’는 것이다. 이만한 산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사가 이 모양이니, 어찌 수령된 자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관청은 내 몸을 사사로이 하려는 곳이 아니다. 王人을 위한 것이니, 가히 혐의스러워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중략)… 완성이 되고 나자 어떤 이가 와서 許侯의 말을 내게 고해 주기를 “누대가 새로 지어졌는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이곳은 공께서 옛날에 노닐던 곳이니, 공께서 이름을 짓고 기문을 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천도 또한 공에게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나는 전에 보았던 바를 가지고 ‘부취浮翠’라고 이름을 짓고 나서, …(중략)… 허후가 행한 한 가지 일에서 태평성대의 조짐과 邑人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기록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¹¹⁾

11) 洪貴達, 「龍宮浮翠樓記」, 『虛白亭集』 권2; 『한국문집총간』 14, 45-46쪽. “龍州沙川之清淺, 林藪之深鬱, 聞于南州. 余少時, 學于縣人朱氏之門, 每講讀有隙, 携同伴步遊川藪間, 倦則投于客舍而休焉. 縣在南山之北北山之南, 四面環翠, 出門有清流拖練, 隔水有深林翳蔚, 可謂勝矣. …(중략)… 弘治四年, 陽川許侯珣, 來莅茲邑, 既興民之利, 除民之害, 民樂其樂, 而復無事於事, 則乃周覽山川之勝, 而登樓嘆曰, 噫, 是所謂不稱. 有如此山川, 而館宇如是, 庸非爲守者責乎. 況官廡, 非以私吾身也, 爲王人也, 敢嫌疑之乎. 客館之東舊樓之北, 有地隆然, 有石碩然, 乃鑿其碩, 夷其隆, 樓于其上, 中三楹, 爲公坐之所, 東西隅各室三間, 爲嚮晦燕息處, 制甚宏麗, 俯瞰晴川, 眼明神爽, 四山嵐翠, 浮浮霏霏, 繚繞乎簷簷之下. 夫然後, 地與居庶幾不相齟齬. 而爲官者, 或氣鬱而政滯, 登斯樓也, 則有豁然而霽, 悅然而悟者矣, …(중략)… 既成, 有以許侯之言, 來告余者曰, 樓新而未有名, 是公舊遊地也, 願公名而記之. 山川其亦有望于公矣, 余以疇昔所面目者名之曰浮翠. …(중략)… 於侯之一舉, 而大平之象, 邑人之心, 可知矣. 是不可以不

부취루는 예천 용궁 지역, 곧 낙동강 상류의 맑은 물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경승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홍귀달이 어린 시절 송씨 문하에서 공부하며 이곳 산천을 즐겼던 개인적 체험을 서두에 밝히고 있다. 1491년 당시 수령 허민이 관사를 정비하고 새로운 누대를 건립한 사실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개인적 취미가 아니라 관아 공간 재정비와 수령의 치적을 드러내는 행위임을 밝힌 것이다. 그리고 홍귀달은 ‘浮翠’라는 명칭을 지어 사방 산의 푸른 빛이 누대 위에 감도는 형세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누대 건립이 단순히 미적 욕망이 아니라, 태평성대의 징후이자 백성들의 안도와 기쁨으로 연결시키며 마무리하고 있다. 부취루의 작품으로는 홍귀달의 기문과 권근¹²⁾, 이황¹³⁾, 강혼¹⁴⁾의 한시는 ‘閒, 閒 山’의 운자를 쓴 7언 절구 형식의 시가 전한다.

② 수월루는 용궁의 중심부에 위치하였으나 『축산승람』 편찬 당시 이미 소실되었다. 金守溫¹⁵⁾, 徐居正¹⁶⁾, 鄭羽相¹⁷⁾의 작품이 보이는데, ‘閒, 閒 山’의 운자를 쓴 7언절구 형식이다. 정우상은 “이름난 누대에 사군이 한가로움을 넉넉히 얻었으니, 장부 사이에 오를 수 있어 좋은 일이네. 어느새 석양은 물가 나무에 저물고, 짐짓 새소리가 청산으로 내

記也.”

- 12) 權近, 「次龍宮客舍板上詩韻」, 『陽村集』 卷7; 『한국문집총간』 31, 23쪽, “一郡風煙十里間, 政清刑簡吏民閑. 門前直道澹臺路, 窓外群峯謝眺山. 幸與故人相會合, 可憐逐客得生還. 從今欲遂爲農志, 窟海由來最險艱.”
- 13) 李滉, 「龍宮浮翠樓」, 『退溪集別集』 卷1; 『한국문집총간』 31, 23쪽. “高樓花事撩人閒, 最愛山茶映竹間. 好鳥豈無春晚恨, 如何終日不歸山”
- 14) 姜渾, 「龍宮浮翠軒」, 『木溪逸稿』 卷1; 『한국문집총간』 17, 163쪽. “高樓一宿覺清閒, 身在煙霞翠積間. 夜雨正佳晴亦好, 朝來雲捲出青山”
- 15) 金守溫, 『拭疣集』 卷4, 「次龍宮水月樓韻」: 『한국문집총간』 9, 451쪽, “清時無事又身閑, 太守交情伯仲間. 痛飲百杯樓上臥, 捲簾南北是青山.”
- 16) 徐居正, 「龍宮水月樓」, 『四佳詩集補遺』 卷3; 『한국문집총간』 11, 27쪽. “身閑不得況心閑, 白盡雙髭簿領間. 謾說青山歸不得, 南采無處不青山”
- 17) 『축산승람』, (한국국학진흥원, 영남사, 2018), 232쪽, “名樓曠得使君閒, 勝事登臨簿牒間. 而已夕陽汀樹暮, 故教禽語下青山.”

려있게 하네.[名樓曠得使君間, 勝事登臨簿牒間. 而已夕陽汀樹暮, 故教禽語下青山]”라고 하였다.

③ 임청각은 1754년 현감 이사질이 건립한 누정으로, 신헌의 서문에 건립의 배경과 명칭 부여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신헌의 서문을 살펴보면 “갑술년(1754) 겨울에李侯[이사질]가 부임하고 나서 문득 말하기를 ‘이런 지역에 정자가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그 다음 해 봄에 마침내 읍 소재지의 남쪽 越川의 북쪽에 땅을 고르게 하고 흙을 쌓아서 작은 정자를 만들었는데, 관청의 재물을 허비하거나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지 않고 개인의 힘으로 규획하여 완성을 하였다. 이름은 ‘임청각’이라고 지었다.¹⁸⁾”라고 하였는데, 임청각이라는 명칭을 통해 마음을 길러 정사에 종사하려는 관리로서 뜻을 드러내고 있다. 임청각을 읊은 인물은 李思質¹⁹⁾, 宋可相,²⁰⁾ 權震應,²¹⁾ 鄭宗,²²⁾ 李敏輔²³⁾, 沈潮²⁴⁾ 등이다. 이사질이 지은 ‘同, 空, 中’의 운자를 쓴 7언 절구 형식을 이후 문인들이 차운한 것이다. 이사질의 시는 “고락을 상하가 함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친 계곡이 백 년 만에 속절없이 비로소 열렸네. 훗날 응당 공정한 평가가 있으리니, 용궁 백성들 지적해도 감내할 수밖에[苦樂

18) 『축산승람』, (한국국학진흥원, 영남사, 2018), 178쪽, “甲戌冬, 李侯下車, 而便謂, 此地不可無亭. 卽以翌年春乃於邑居之南, 越川之北闕, 地築臺作小亭, 而未曾費官, 財勞民力, 私自規劃, 而成之. 名之曰臨清閣.”

19) 『축산승람』, (한국국학진흥원, 영남사, 2018), 233쪽, “苦樂不知上下同, 始開荒谷百年空. 佗時應有公評品, 一任龍民指點中.”

20) 『축산승람』, (한국국학진흥원, 영남사, 2018), 234쪽, “古柏清川意味同, 翼然亭起壑塵空. 簿閒琴嘯引佳客, 政事風流談笑中.”

21) 『축산승람』, (한국국학진흥원, 영남사, 2018), 234쪽, “休說公評同不同, 龍州風物未云空. 歐翁昔日滌亭樂, 魚鳥忘形一化中.”

22) 『축산승람』, (한국국학진흥원, 영남사, 2018), 235쪽, “官齋蕭灑野菴同, 暇日憑欄萬慮空. 臨流賦詠閑閑趣, 不待歸來栗里中.”

23) 『축산승람』, (한국국학진흥원, 영남사, 2018), 235-256쪽, “臨水新樓畫舫同, 落霞孤鶩晚沙空. 耕桑百里熙熙化, 要在鳴琴坐嘯中.”

24) 『축산승람』, (한국국학진흥원, 영남사, 2018), 256쪽, “君子居官自不同, 臨溪小閣世緣空. 割雞何有牛刀用, 暇日陶然臥此中.”

不知上下同, 始開荒谷百年空. 佗時應有公評品, 一任龍民指點中]”이다.

④ 만파루는 고려 때 관청의 일부 건물이었다. 고려 성종 1년(982)에 향석리 낙동강 東岸에 龍州政閣으로 창건되어 ‘觀日樓’라 하여 내려오다가 고종21년(1884)에 현감 한진규가 만파루로 개칭하였다. 철종7년(1856) 대 홍수로 침수된 것을 철종8년(1857)에 읍부리의 객사 곁으로 이건하였으나, 1945년 붕괴되어 오다가 1988년 다시 세웠다.²⁵⁾ 만파루에는 蘇鎮夏의 시²⁶⁾가 남아 있다. 시는 “용궁 고을의 경치 좋은 만파루, 현가하던 그때가 언제 적인가. 저문 길에서 공연히 성쇠의 감회 일어, 올라서 슬프게 한 번 돌아보네[龍州形勝萬波樓, 當日歌絃度幾秋. 暮道空將興廢感, 登臨悵悵一回頭]”이다.

사적 공간으로 분류되는 누정은 총 48개소 중 29개소에서 작품이 현전한다. 이들 누정은 사족 개인의 거처와 독서, 은거와 교유를 위해 건립되었다. 사적 누정을 배경으로 창작한 작품을 빈도순으로 살펴보면 청원정, 송덕각, 이요정, 삼의정, 영련당, 송파정, 곡강정, 삼수정의 순서로 작품이 창작되었다. 또한 문체 빈도는 한시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記, 銘, 序 등의 작품이 혼재되어 있다. 주요 누정을 중심으로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① 청원정²⁷⁾은 전원발이 거처하던 곳으로 용궁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25) 김종배, 『예천누정록』, (예천문화원, 예일출판사, 2010) 261-263쪽.

26) 『축산승람』, (한국국학진흥원, 영남사, 2018), 240쪽, “龍州形勝萬波樓, 當日歌絃度幾秋. 暮道空將興廢感, 登臨悵悵一回頭.”

27) 퇴계의 청원정 관련 한시를 2편 실고 있는데, 이 시에 대해서는 시비가 있다. 전라도 광주에 청원정이 있었는데, 金彦瑠의 『漆溪遺集』에 퇴계의 동일한 한시가 실려져 있다. 그리고 안동의 순흥안씨 집안에서도 청원정이라는 정자가 있었는데 『죽계연방집』에 퇴계가 安繼宗에게 준 시라고 하면서 해당 한시를 실어 서로 자기 문중의 정자를 두고 퇴계가 지은 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가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도산급문제현록』에서 퇴계의 청원정 관련 한시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도산급문제현록』에서 전찬에 대한 기록을 보면 ‘퇴계에게서 청원정 시를 받고 暎蓮堂의 화답한 시편과 편액의 글씨는 모두 퇴계에게서 받은 것이다’라고 되어 있으니, 퇴계가 전원발이 건립한 청원정에 대

누정이다. 청원정은 전원밭이 만년에 건립하여 유유자적하던 곳인데 1918년 향론에 따라 다시 세웠다. 정자 내부에는 이황의 시가 걸려있다. 퇴계 이황이 전원밭의 청원정을 배경으로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는 후대에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원정이 지닌 문화적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 작품에는 李惟禕의 청원정별묘봉안문²⁸)과 이황²⁹), 고상안³⁰), 文敬全³¹)의 한시가 전한다.

② 만수정은 용궁현에서 서쪽으로 10리 거리인 왕태동에 있었다. 고명세가 휴식하던 곳으로 고명세의 원운 시³²)가 전한다. 시는 “백발 나이에 당 앞에 나무를 심고, 우로 속에서 태평성대를 배양하였네. 춘풍이 이르러 골짜기에 따뜻하게 불어오면, 한 그루 나무에 꽃과 잎이 가득하리라.[堂前種樹白頭年, 培養明時雨露天. 若到春風噓煥谷, 一身花葉萬而千]”이다.

③ 매오신정은 용궁현에서 남쪽으로 20리 거리인 포내리에 있었다. 정영후가 축조한 것으로, 1930년대에 증건하였다. 정영후는 김성일에게

해 지은 시라고 추측할 수 있다. 全繼(1546~1612)의 자는 景先, 호는 四友堂으로 퇴계에게 수학하였던 인물이다. 황위주, 「예천지역의 퇴계학맥」, 『퇴계학과 유교문화』 28,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0, 23-24쪽.

28) 李惟禕, 『孤山集』 卷6, 「淸遠亭別廟奉安文」; 『한국문집총간』 126, 116쪽.

29) 李滉, 『退溪集』 卷4, 「寄題淸遠亭 二首」; 『한국문집총간』 29, 138쪽, “聞道幽居作小塘, 花中君子發天香. 可憐植物淸如許, 曾對高人映露光. 光霽高懷百世風, 淸通嘉植一塘中. 洗心洗眼來看處, 宛見當時無極翁.”

30) 高尚顏, 『泰村集』 卷1, 「到淸遠亭, 邀尹士淵. 全菊坡諱元發亭」; 『한국문집총간』 59, 211쪽, “好是春江上, 垂楊映碧波. 相攜一樽酒, 對酌興如何.”

31) 文敬全, 『滄溪集』 卷3, 「次淸遠亭韻」; 『한국문집총간』 1, 429쪽, “碧水縱橫白石邊, 危亭影落鏡中天. 吟哦剩得騷家趣, 登眺都然害馬牽. 寫景却嫌王勃後, 探奇肯望子長前. 不惟翰墨慚先輩, 第一治名負穎川.”: 「題淸遠亭二首」; 『한국문집총간』 1, 430쪽, “亭在鰲頭最絕奇, 人間煩熱可能披. 一溪鴨綠涵淸影, 列岫螺青惹遠眉. 風月爽君方寸地, 煙霞撩我數篇詩. 蕭騷暮景探垂盡, 更逐冰輪碾上時. 簿領叢閒歲月深, 數莖疎鬢雪侵尋. 自嫌阜蓋紅塵累, 暫試淸泉白石心. 爽氣滿懷生沆瀣, 閒雲捲影破冥沉. 登臨報答湖山勝, 莫負樽前漫浪吟.”

32) 『축산승람』, (한국국학진흥원, 영남사, 2018), 87쪽, “堂前種樹白頭年, 培養明時雨露天. 若到春風噓煥谷, 一身花葉萬而千.”

수학하였고, 후에 정구를 사사하였으며, 정경세와 師友의 관계였다. 매표 오신정에는 정윤목의 5언 율시 2수³³⁾가 전한다. 시의 일부는 “오래구나. 나의 노쇠함이 심하니, 이름난 정자에 감히 제를 못하네. 산천은 참으로 깨끗하고 수려하고, 운물은 그윽한 은거에 적합하네. 처마 달은 매화 핀 언덕으로 옮겨가고, 못의 바람은 연꽃 핀 못 독을 건너가네. 솔숲이 가장 즐길 만하니, 하나의 띠처럼 가지런히 당을 둘렀네.[久矣吾衰甚, 名亭不敢題. 山川信明麗, 雲物合幽栖. 檐月移梅塢, 池風度荷堤. 松林最可玩, 一帶遶堂齊]”이다.

④ 퇴수정은 용궁현에서 서쪽으로 10리 거리인 금수 가에 있었다. 고희윤의 원운 시³⁴⁾가 전한다. 시는 “누웠다 일어났다 시내 동쪽 백발노인, 베개 곁에서 세상일 어두워도 탈이 없네. 지금 누가 강호의 아취를 알리오, 만사는 구름처럼 잠 한숨에 있는 걸[臥起溪東白首翁, 枕邊無恙世相龔. 自今誰識江湖趣, 萬事如雲一睡中.]”이다.

⑤ 송과정은 용궁현에서 동쪽으로 10리 거리인 月梧村에 있었다. 安夢徵이 휴식하던 곳으로 원운³⁵⁾이 전한다. 시는 “모옥은 새로 지어 처마도 자르지 않고, 작은 뜰에는 조그만 티끌조차 없다네. 자욱한 안개 속 가는 버들은 가지마다 야들하고, 비에 씻긴 기이한 봉우리는 몇 점이 솟아 있네. 아무개는 지극히 졸렬하다 스스로 믿거니와, 경치를 탐하니 온전히 청렴하지 않다고 다들 말하네. 때때로 취하여 달밤 꽃 숲에 누우니, 맑고 깨끗한 속에 흐드러지게 운치가 곱했구나.[茅屋新成不翦

33) 鄭允穆, 「題梅塢新亭 二首」, 『淸風子集』 卷2; 『한국문집총간』 17, 230-231쪽, “久矣吾衰甚, 名亭不敢題. 山川信明麗, 雲物合幽栖. 檐月移梅塢, 池風度荷堤. 松林最可玩, 一帶遶堂齊. 天地藏遺處, 登臨寬且閒. 江山助仁智, 風景立懶頑. 淨几通宵對, 明窓盡日關. 主翁何所樂, 客宿卻忘還.”

34) 『축산승람』, (한국국학진흥원, 영남사, 2018), 92쪽, “臥起溪東白首翁, 枕邊無恙世相龔. 自今誰識江湖趣, 萬事如雲一睡中.”

35) 『축산승람』, (한국국학진흥원, 영남사, 2018), 90-91쪽, “茅屋新成不翦檐, 小庭塵穢絕埃纖. 煙濃細柳千絲軟, 雨洗奇峯數點尖. 自信謀生爲至拙, 皆言探景未全廉. 時時醉臥花林月, 蕭灑中間爛熳兼.”

檐, 小庭塵穢絕埃纖. 煙濃細柳千絲軟, 雨洗奇峯數點尖. 自信謀生爲至拙, 皆言探景未全廉. 時時醉臥花林月, 蕭灑中間爛漫兼.]”이다.

⑥ 이요정은 용궁현에서 동쪽으로 30리 거리인 마전 아래에 있었다. 문관이 축조한 것이다. 윤신지³⁶⁾, 김우굉³⁷⁾, 황섭³⁸⁾, 이우³⁹⁾ 등의 시가 전하는데 김우굉의 작품을 차운한 것이다. 김우굉의 시는 “몇 해 동안 우환에 백발이 온통 머리에 내렸고. 우연히 이곳에 올라 바라보니 흥취가 절로 넉넉하구나. 십 년 만에 다시 만나 눈빛을 마주하니, 한바탕 꿈처럼 아름다운 유람이 되었구나. 서리 먼 단풍은 물에 비취 시상을 제공해 주고, 산비가 물줄기 더해지니 나그네 수심이 늘어나네. 밤이 되어 운연이 처마 밖에 묵으니, 먼 물가 고기잡이 불에 유독 배가 밝구나.[年來憂患白渾頭, 偶此登臨興自優. 十載相逢瞪碧眼, 一場如夢做佳遊. 霜楓照水供詩料, 山雨添波剩客愁. 入夜雲烟簷外宿, 遠洲漁火獨明舟.]”이다.

⑦ 관물당은 반중이 축조한 것이다.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에서 태어나 일찍 부친을 여의고 지극한 효성으로 모친을 섬겼다. 모친이 세상을 떠나자 시묘살이를 하면서 3년 동안 죽만 먹었으며, 한 번도 집에 가지 않았다. 1651년(효종2)에 효자정려가 내려진 인물이다. 정탁의 시⁴⁰⁾가 모두 네 수가 전한다. 제 1수는 “앞에는 연꽃이요, 뒤에는 대나

36) 尹新之, 『玄洲集』 卷6, 「次二樂亭韻」, 『한국문집총간』 20, 341쪽, “飛鳳高騫洛水頭, 一江形勝此爲優. 五湖自有陶朱興, 六印寧須季子遊. 駟馬高車何日到, 白沙芳草去年愁. 天門鬼守黃金少, 歸向烟波上小舟.”

37) 金字宏, 『開巖集』 卷1, 「題二樂亭亭在醴泉多仁縣, 文習讀經濟其主人也. 己卯以大司諫到是亭, 留宿題之云」, 『한국문집총간』 3, 292쪽, “年來憂患白渾頭, 偶此登臨興自優. 十載相逢瞪碧眼, 一場如夢做佳遊. 霜楓照水供詩料, 山雨添波剩客愁. 入夜雲烟簷外宿, 遠洲漁火獨明舟.”

38) 黃暹, 『息庵集』 卷2, 「二樂亭次韻在多仁江岸上」 『한국문집총간』 5, 429쪽, “歧路驚弓雪滿頭, 水鄉閒適較來優. 晴莎暝入漁歌起, 晚樹涼生野客遊. 黃犢自還知是性, 白鷗相近有何愁. 吟邊寓目清難了, 更邀嫦娥共一舟.”

39) 李瑀, 『玉山詩稿』, 「次二樂亭韻文經濟之亭也. 在多仁縣江邊」, 『한국문집총간』 53, 10쪽, “卧龍崗斷大江頭, 上有高亭景象優. 花月幾經飛鳥過, 煙波長占狎鷗遊. 清風一盖牽詩興, 返照千峯亂客愁. 此水下流吾卜築, 解龜何日弄扁舟.”

40) 鄭琢, 『藥圃集』 卷1, 「觀物堂寓吟 四首」; 『한국문집총간』 39, 430쪽, “前有蓮

무 숲, 중간에 높은 누각 티끌 없이 맑구나. 내가 와서 바라봄에 맑은
홍취도 많으니, 국화주를 마시는 구월의 상순이네.[前有蓮兮後有竹, 中
間高閣淨無塵. 我來臨眺多清興, 泛菊九秋之上旬.]”이다.

⑧ 만족정은 용궁현에서 동쪽으로 40리 거리에 있었다. 金在憲이 축
조한 것으로 그의 시⁴¹⁾가 “숲 속의 좁디좁은 몇 칸짜리 집, 십여 년을
구상하여 완성한 것이라네. 죽사의 맑은 바람에 봄잠이 넉넉하고, 낙동
강 달 밝아 밤에도 독서하네. 울에 심은 떨기 국화는 만발하려고 하는
데, 문에 심은 어린 괴목은 수레를 스칠 듯하네. 늙고 병든 나만 살려는
게 아니고, 여러 자손을 위해서 지은 거라네.[林間窄窄數間廬, 意匠綢繆
十載餘. 竹社清風春足睡, 洛江明月夜看書. 籬栽叢菊期闌馥, 門植稚槐擬
拂車, 老病非徒栖息計, 爲其諸子衆孫渠.]”이다.

⑨ 자복당은 용궁현에서 남쪽으로 40리 거리인 松蘿洞에 있었다. 權
時憲이 축조한 것으로 원운⁴²⁾이 전한다. 시는 “산 좋고 물 좋은 곳, 하
늘이 만들어 준 널찍한 땅이 있네. 그곳에 자복당이 처음으로 세워지니,
마음을 쉬는 관문임을 여기에서 알겠네. 라고 하였다.[山明水麗間, 天作
地寬閒. 自復堂初建, 從知妥意關.]”이다.

⑩ 소주정은 용궁현에서 서쪽으로 10리 거리인 東山 아래에 있었다.
高徽世가 터를 잡은 곳으로, 원운⁴³⁾이 전한다. 시는 “금수 서쪽 언덕의

兮後有竹, 中間高閣淨無塵. 我來臨眺多清興, 泛菊九秋之上旬. 濂翁夙著愛蓮
說, 坡老又題綠筠軒. 今日一堂兼兩美, 蓮光竹色爽朝昏. 京洛多年費暑寒, 幾番
回首戀鄉山. 南來正值秋風晚, 萬介疏篁依舊顏. 滿園猗竹千竿翠, 半畝澄潭一鏡
明. 獨倚危欄眼不得, 夜來風月十分清.”

41) 『축산승람』, (한국국학진흥원, 영남사, 2018), 93쪽, “林間窄窄數間廬, 意匠綢繆
十載餘. 竹社清風春足睡, 洛江明月夜看書. 籬栽叢菊期闌馥, 門植稚槐擬
拂車, 老病非徒栖息計, 爲其諸子衆孫渠.”

42) 『축산승람』, (한국국학진흥원, 영남사, 2018), 98쪽, “山明水麗間, 天作地寬閒.
自復堂初建, 從知妥意關.”

43) 『축산승람』, (한국국학진흥원, 영남사, 2018), 89-90쪽. “巖齋幽闥錦西岡, 料得
生平養性方. 天下誰爭山水樂, 庭前閒譜蕙蘭芳. 家遺古幌承煙帳, 閑列同堂夢草
塘. 高枕滔滔聲海外, 聽天嘯傲也何妨.”

그윽한 암재, 평생 수양하던 방법이 되었으리. 천하에 누구와 산수의 즐거움을 다투랴, 뜰 앞에서 한가로이 향초를 기록하네. 집에 전하는 오랜 휘장은 연장처럼 받들고, 문에 늘어선 동당은 초당을 꿈꾸네. 도도한 명리의 바다 밖에 편히 누워, 천명 따라 소요한들 또한 무슨 문제이리.[巖齋幽閨錦西岡, 料得生平養性方. 天下誰爭山水樂, 庭前閒譜蕙蘭芳. 家遺古幌承煙帳, 閑列同堂夢草塘. 高枕滔滔聲海外, 聽天嘯傲也何妨.]이다.

⑪ 수졸현은 용궁현에서 북쪽으로 3리 거리인 佳野里에 있었다. 全相武가 독서하던 방으로, 그의 시⁴⁴⁾가 전한다. 시는 “공부가 즐렬하여 작은 집도 오감한데, 그 속에 일없는 주인이 거처하네. 회포에는 맑은 시, 시름에는 술이 적합하고, 옷은 헤어진 솜, 음식은 채소가 마땅하리. 가난한들 안향의 즐거움이 사라지랴, 궁할 때는 위수 가의 낚시질을 배울 만하네. 심신을 잡아 모두 여기에 쏟더라도, 냉담한 가계에 완전히 소홀한 건 아니라네.[拙業自甘一小廬, 其中無事主人居. 懷可清詩愁可酒, 衣當弊緇食當蔬. 貧亦何傷顏巷樂, 窮而堪學渭濱漁. 把捉心神都此了, 淡然家計未全疏.]”이다.

위의 고찰을 통해 예전 용궁 지역 누정의 전체 윤곽과 문학적 분포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공적, 사적 공간의 성격에 따라 건립 목적과 사용 주체가 명확히 구분되었다. 공적 누정은 15세기 후반-18세기 중반까지 확인할 수 있었으며, 부취루(1491)-수월루(15세기 후반)-임청각(1754)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사적 누정은 16세기 중후반을 중심으로 폭발적 증가하고 있으며, 전원발, 고필원, 채문정 등 사족 집안마다 누정을 건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대가 교차하는 문학이 연속한 누정에 15세기 인물과 18세기 인물의 차운이 공존하여 나타났다. 즉 누정이 공간과 세대의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으며, 공적 누정과

44) 『축산승람』, (한국국학진흥원, 영남사, 2018), 101-102쪽, “拙業自甘一小廬, 其中無事主人居. 懷可清詩愁可酒, 衣當弊緇食當蔬. 貧亦何傷顏巷樂, 窮而堪學渭濱漁. 把捉心神都此了, 淡然家計未全疏.”

사적 누정 모두에서 연작과 차운의 구조적 반복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용궁 지역이 경북 내륙의 교통의 요충으로 문중과 사족 네트워크 형성이 쉬웠고, 이 네트워크가 누정을 대상으로 하는 시문을 중층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3. 용궁지역 누정시 양상

본 장에서는 2장에서 공적, 사적 공간으로 구분한 누정의 성격을 바탕으로, 각 공간에서 생산된 시문을 주제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용궁 지역의 누정시는 공무, 자연에의 흥취, 성찰, 은일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는데, 공간의 성격에 따라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1) 공적 공간

용궁 지역의 공적 공간 누정시는 관아와 객사가 결부된 누각을 배경으로 형성된 작품들로 구성되며, 지방관의 직무, 자연에의 관망, 교유와 차운이 결합된 문학적 특징을 갖는다. 이들 작품은 공간의 공적 성격을 전제하면서도, 그 속에서 발견되는 행정 공간의 긴장과 제한적 여유와 자연으로 환기와 감응 등이 형상화되고 있다. 특히 용궁의 누정시에는 차운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특정 문인 집단의 결속이나 학맥, 당맥과 같은 사회적 관계망으로 환원되기보다는, 공간을 매개로 반복되는 시의 창작 구조로 파악하고자 한다. 즉 용궁 지역에서의 차운은 ‘누가 누구와 교유했는가.’라는 인물 중심보다, ‘어떠한 방식의 창작이 어떻게 지속되었는가.’라는 문학 방식 중심에 둔다. 이는 차운이 개별 문인의 사적 관계를 드러내기 이전에, 공간에 귀속된 문학적 관행으로 작동했음을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1) 공무의 긴장과 ‘閑’의 정서

공적 누정은 본래 정무 공간의 일부이지만, 시문에서는 반복적으로 ‘閑’의 정서가 드러난다. 이는 지속적 업무 압박 속에서 잠시 획득되는 심리적 여유를 의미하며, 자연 조망을 매개로 정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여준다. 부취루와 수월루 등에서 형성된 차운 연작들은 이러한 구조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光陰送盡驛塵間	역마의 먼지 속에서 세월을 다 보냈는데
半日憑危借暫閒	잠시 한가함을 빌려 만나질 위태로이 기대었네.
當暑裳衣輕白苧	여름 되어 입은 상의는 흰 모시로 가벼워졌고
晚涼樓閣近青山	저물녘의 서늘한 누각은 청산에 가깝네.
燕鶯簾額相酬唱	제비와 피꼬리는 주렴위에서 주고받고
雲鳥天衢自往還	구름과 새는 하늘 거리에서 절로 오가네.
回首羨他雙雪客	머리를 돌리니 저 한 쌍의 백로가 부러운데
煙波無地著危艱	안개 자욱한 물결 속, 발 붙일 데 없어 아슬아슬하구나.
忙奔東北未偷閒	동북을 분주하게 뛰어다녀 한가함을 훔치지 못해
馬上光陰逆旅間	말 위에서 세월, 객사에서 보내노라.
倦客倚欄驚午夢	지친 나그네 난간 기대어 낮 꿈을 깨니
眼明沙鳥與青山	모래톱 새와 푸른 산에 눈이 밝아지네.
身如老馬戀天閑	몸이 늙은 말과 같아 하늘 마구간을 그리워하며
北望雲霄紫翠間	북쪽으로 구름 하늘, 보랏빛과 푸른빛 사이를 바라보네.
才盡恨無驅使筆	재주 다하여 붓을 부려 구사할 수 없음을 한하자니
臥聞松籟響前山	송뢰가 앞산에서 울리는 것을 누워서 들었네. ⁴⁵⁾

黃俊良이 부취루 시에 차운한 작품으로 7언 율시 1수와 7언 절구 2수로 이루어진 연작시인데 원운시는 상세하지 않다. 제1수의 전반부는 누각에서 바라본 청산을 통해 바쁜 공무 중에도 자연 가까이에 있는 자신을 드러낸다. 후반부에서는 ‘燕鶯’과 ‘雲鳥’라는 자연의 존재들이 자유

45) 黃俊良, 『錦溪集』 外集 卷4, 「次浮翠樓 三首」: 『한국문집총간』 37, 112쪽.

롭게 노니는 모습이 묘사하면서 황준량의 지방관으로서 고정된 삶과 대조된다. 그리고 한 쌍의 백로에 대한 동경과 안개 낀 풍경을 묘사하며 삶의 위태로움을 드러내고 있다.

제2수의 전반부는 제1수의 연장선상에 있다. 여전히 바빠 달리고 있고, 말 위에서 시간을 보내며, 여관에서 잠시 쉰다. 하지만 핵심은 ‘驚’이라는 단어에서 깜짝 놀란 자각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이 깨어남 이후, 황준량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沙鳥’와 ‘靑山’을 눈 밝아진 상태로 바라본다.

제3수에서는 시인은 스스로를 ‘老馬’에 비유하며 자기 위치를 낮춘다. 시어 ‘天閑’을 통해 궁궐의 마구간을 상징하는데 중앙에 대한 그리움을 내비치고 있다. 이어서 ‘才盡’과 ‘恨無驅使筆’에서 문인으로서의 자기한계를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마지막 구에서는 시를 멈추고 바람 소리를 들으며 자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바쁜 공무 중에 얻은 ‘閑’에 집중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홍성민의 부취루 차운시 일부 역시 황준량의 7언 율시와 같은 운자를 사용하고 있다.

鬢毛斑盡簿書間	귀밑머리 희끗희끗, 공문서 일을 다했건만
造物胡爲不借閑	조물주는 어찌하여 한가로움을 빌려주지 않는가,
身抵百年惟赤愜	몸을 버티면서 백년토록 오직 정성을 다하고
簾開三面是靑山	주렴을 걸으니 삼면이 청산이로구나.
危樓望眼昏猶冷	높은 누각에서 바라보니 눈은 어둡고 차고
垂釣何人夕未還	낚시대 던져 놓은 어떤 사람은 저녁인데도 돌아오지 않는구나.
溪畔白鷗休笑我	냇가 두둑에 앉은 백구는 나를 비웃지 마소
窺魚終日得無艱	종일토록 물고기 엿보니 어찌 고달프지 않으리오. ⁴⁶⁾

이 작품은 洪聖民이 부취루 시를 차운한 작품이다. 작품의 전반부는

46) 洪聖民, 『拙翁集』 卷2 「次龍宮浮翠樓韻」: 『한국문집총간』 46, 451쪽.

귀밑머리에서 세월이 흐른 흔적을 느끼며, 세속적인 일에 몰두해 왔음을 말하고 있다. 이어서 조물주가 왜 여유나 시간을 주지 않는지에 대한 한탄하고 있다. 그러나 버텨온 지난 세월 덕분에 눈 앞에 펼쳐진 청산의 경치를 볼 수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 후반부는 고독과 허무함을 느끼며, 높은 곳에서 주변을 바라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또한 저녁이 되었음에도 돌아오지 않는 강가의 낚시꾼은 자연 속에서의 유유자적 삶을 상징하지만, 시인은 이러한 삶을 실천하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백구의 ‘물고기 옛봄’을 은유하여 인생에서의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 쉽게 얻을 수 없지만 끝내 이를 수 있음을 드러낸다. 이는 공무 중에 얻은 한가로움에 작은 희망을 놓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의 두 작품인 황준량과 홍성민의 시는 차운한 작품이다. 부취루의 원운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벗이나 선배의 시에 같은 운을 사용한 것이다. 원운시를 차운한다는 것은 단순 모방이 아니라 차운을 통해 문학적 교유의 한 방법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장소를 기념하고 기록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두 작품은 차운이라는 방식으로 연결되면서, 개인의 체험이 공동의 감흥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증명한다. 이외에도 이황의 「龍宮浮翠樓」⁴⁷⁾과 강혼의 「龍宮浮翠軒」⁴⁸⁾도 같은 운자를 써서 당시의 감흥을 읊고 있는데, 이는 文敬叟에서 시작되어 姜渾과 이황을 거쳐 황준량, 홍성민, 김태일로 이어지고 차운의 계보를 뚜렷이 보여준다.

부취루 시문을 남긴 작가군을 살펴보면, 황준량, 홍성민, 김태일 등은 모두 이황의 학맥에 속하며, 고경동 역시 혼인관계를 통해 이와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시문은 특정 공간에의 우연한 축적이라기보다, 일정한 문인 집단의 관계망 속에 형성된 결과로 보인다. 더 나아

47) 李滉, 『退溪集』 別集 卷1, 「龍宮浮翠樓」: 『한국문집총간』 31, 23쪽, “高樓花事撩人閒, 最愛山茶映竹間. 好鳥豈無春晚恨, 如何終日不歸山.”

48) 姜渾, 『木溪逸稿』 卷1, 「龍宮浮翠軒」: 『한국문집총간』 17, 163쪽, “高樓一宿覺清閒, 身在煙霞翠積間. 夜雨正佳晴亦好, 朝來雲捲出青山.”

가 이 지역 시문 창작 집단은 이황을 중심으로 한 학맥을 축으로, 그리고 예안, 연안, 청송, 안동 등을 기반으로 한 향촌 사족 네트워크가 중층적으로 결합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을 특정 누정에 축적된 시문은 단순히 동일 공간을 향유한 감회를 반복적으로 표출한 산물이 아니라, 일정한 문인 집단의 학맥과 교유 관계 속에서 형성된 문화적 산물로 파악된다. 용궁 지역은 안동-상주 문경을 연결하는 지리적 중간 지점에서 문인 교유와 문화 생산이 이루어지는 거점 공간으로 기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다른 공적 공간인 수월루 작품 또한 차운한 작품으로 공간은 비록 다르지만 閑, 間, 山 운자가 같음을 알 수 있다.

淸時無事又身閑 맑은 때 일도 없고 몸도 한가로우니
 太守交情伯仲間 태수는 伯과 仲 사이에서 교분을 맺네.
 痛飲百杯樓上臥 백 잔 술 실컷 마시고 누대 위에 누워
 捲簾南北是靑山 주렴 걸으니 남북이 푸른 산일세.⁴⁹⁾

金守溫이 수월루를 차운한 작품으로 관직에 얽매이지 않고 한가로이 지내는 여유로움, 친구와의 교유, 그리고 자연 속에서의 풍류를 담아낸 작품이다. 김수온은 태평성세에 근심 없는 시절, 마침 일도 없어 몸까지 편안한 평화로운 순간을 묘사하고 있다. 한껏 술을 마신 뒤, 자연 속 누정에서 놓는 장면은 풍류와 유유자적한 삶의 정취가 그대로 표현된다. 마지막으로 주렴을 걷는 순간 펼쳐지는 광경은 사방이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절경이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여유를 극대화하는 구절이다.

身閑不得況心閑 몸이 한가로움을 얻지 못했는데 하물며 마음의 한가로움이라
 白盡雙髭簿領間 양 볼의 수염은 문부[簿領] 사이에서 다 희여지네.

49) 金守溫, 『拭疣集』 卷4, 「次龍宮水月樓韻」: 『한국문집총간』 9, 451쪽.

謾說靑山歸不得 靑산으로 돌아감을 얻지 못해 부질없이 말하였는데
南采無處不靑山 남쪽에 오니 청산 아닌 곳 없다.⁵⁰⁾

이 시는 徐居正이 수월루를 지은 작품으로, 관직에 있으면서 느끼는 피로와 속박, 그리고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다. 바쁜 관직 생활에 시달리는 현실, 육체적 여유도 없는데 어찌 마음의 평안을 기대하라는 자조 섞인 탄식이 드러난다. 세월이 흐르며 공무에 시달리다 보니, 수염이 하얗게 세었음을 표현하고 있다. 자연으로 돌아가고픈 소망은 크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하니, 그저 말만 하는 것 자체가 허망하다는 자각이 담겨 있다. 그러나 남쪽 지방으로 오니, 온통 청산이라 말하며 현실 속에서도 자연을 만날 수 있음을 드러낸다. 용궁의 수월루 이곳은 과거에 청산으로 돌아가기를 노래 부르던 서거정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덕분에 ‘閑’을 얻게 되는 장소로 읽힌다.

名樓曠得使君閑 이름난 누대에서 사군은 한가함을 흠뻑 얻거니
勝事登臨簿牒間 공무 사이에도 오를 수 있어 가장 좋다네.
而已夕陽汀樹暮 어느새 석양이 물가 나무 사이로 저무니
故教禽語下靑山 짐짓 새소리가 청산으로 내려앉게 하는구나.⁵¹⁾

鄭羽相이 수월루를 읊은 작품이다. 작품에서 누정은 단순한 풍류의 장소가 아니라, 관료가 정무에서 벗어나 잠시 마음을 달래는 휴식처로 묘사되고 있다. 공무 속에서도 누정에 올라 얻는 ‘한가로움’ 즉 바쁜 업무 틈에서 얻게 되는 귀한 휴식을 말하고 있다. 이 시 역시 중심 정서는 ‘閑’이다. 단순한 경물 묘사가 아니라, 관직자의 여가와 수양, 그리고 자연에의 침잠을 드러내고 있다. 수령의 정치적 삶 속에서 누정이 가지는 의미와 정서를 잘 드러내고 있다.

50) 徐居正, 『四佳集』 補遺三, 「龍宮水月樓」: 『한국문집총간』 11, 184쪽.
51) 『축산승람』, (한국국학진흥원, 영남사, 2018) 232쪽.

이처럼 용궁 지역 공적 누정의 시편들은 관직자의 피로와 속박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자연의 경관을 통해 마음의 안식을 얻고자 했다. 부취루와 수월루에 남겨진 이 작품들은 공적 공간이 단순한 업무 공간을 넘어, 자연을 동경하며 은일을 모색하는 장소였음을 보여준다. 특이한 점은 강훈, 이황, 서거정, 정우상 등은 같은 시대, 같은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운자를 쓴 작품이 주를 이룬다. 이는 누정이 문인들의 교류와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차운이 세대를 넘어 지속되는 지역 한문학의 연속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2) 공공의 장과 ‘興’의 감발

용궁 지역의 공적 누정은 관아와 객사 등 행정시설에 부속된 건물이었으나, 실제 기능은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 공공의 장소로 확장되었다. 여기에서 문인과 수령, 그리고 향중 백성까지 다양한 주체가 교차하며, 자연, 정무, 교유가 결합된 장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공간에서 드러나는 핵심 정조가 바로 ‘興’이다. ‘흥’은 누정과 누정과 어우러진 자연, 사람 등을 마주하는 순간에 생겨나는 정서인 것이다.

相地成亭子 터를 골라 정자를 세우니
 登臨面目奇 올라서 보는 풍광이 기이하구나.
 長川回野藪 긴 강이 들과 숲을 휘돌아 흐르고
 短麓雜官基 낮은 기슭에 관청의 터가 어울려 있네.

種藥三層塢 약초를 심은 층층의 언덕에서
 觀魚半晦池 반묘의 못에 사는 물고기를 구경하네.
 於焉真吏隱 이곳이야 말로 참으로 관리의 은거처이니
 幽興已何時 그윽한 흥취 언제나 그칠 수 있을까.

苦樂不知上下同 고락을 상하가 함께하는지는 모르겠으나
 始開荒谷百年空 거친 계곡이 백 년의 공허를 비로소 열렸네.
 佗時應有公評品 훗날 응당 공정한 평가가 있으리니

一任龍民指點中 용궁 백성들에게 일임하여 가리키게 하리라.⁵²⁾

이사질이 임청각을 읊은 세 작품이다. 제1수는 공간이 긴 강, 들과 숲, 산기슭, 관청 건물이 함께 어우러져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제2수는 단순한 은자의 은거가 아니라, 관리를 위한 은거처임을 밝히고 있다. 제3수는 수령과 백성이 고락을 함께한다는 이상적 정치와 수월루가 건립되기 전까지 백 년 동안 방치되었던 공간을 이제 비로소 열었다는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훗날 공평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 자신한다. 특히 용궁 백성들이 자유롭게 비평할 수 있도록 맡긴다는 구절에서 단순한 산수시가 아니라, 누정을 통한 후대 평가까지 내다보는 의식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 작품은 관료로서의 은일을 드러내는 동시에 공적 공간이 백성과 함께한다는 소통의 공간임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제3수에서 “고락을 상하가 함께한다.”는 구절과 “용궁 백성들에게 일임하여 가리키게 하리라.”는 대목은, 누정이 단순히 치적의 무대가 아니라 백성과 함께 평가 받고 소통하는 공적 장소임이 드러난다.

古柏清川意味同 늙은 측백 나무와 맑은 시내, 의취가 동일한데
翼然亭起壑塵空 나를 듯 솟은 정자, 골짜기에 솟아 있으니 티끌이 사라
지네.
簿閒琴嘯引佳客 공무 틈타 거문고와 휘파람으로 가객을 불러들이니
政事風流談笑中 정사와 풍류가 담소 속에 있구나.⁵³⁾

송가상이 이사질의 임청각 작품을 차운한 것으로 보인다. 늙은 측백과 맑은 물은 장구한 세월과 청정함을 상징한다. 특히 ‘塵空’은 누정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속세를 벗어나 맑음을 체험하는 공간임을 시사

52) 『축산승람』, (한국국학진흥원, 영남사, 2018), 232-233쪽.

53) 『축산승람』, (한국국학진흥원, 영남사, 2018) 234쪽.

하고 있다. 공적 누정은 정무의 틈새 공간이다. 작가는 그 틈을 이용하여 거문고 타며 휘파람 부는 행위를 통해, 심성을 기르고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드러낸다. ‘引佳客’은 손님을 맞아 교유하는 장면으로, 누정이 개인의 휴식처를 넘어 교유와 향유의 사회적 장이었음을 말한다.

송가상은 이사질은 원운의 운자와 구조를 공유함으로써 연속성과 연대감을 드러내며, 동시에 이사질의 시가 가지는 공적인 공간에 머물지 않고 자연과의 흥취를 덧입혔다고 할 수 있다.

白頭交誼豈如新	백발이 되도록 사귀 정, 어찌 새로 만난 것 같으리오
末路心期我二人	말년의 길에 나와 두 사람, 마음으로 만났다네.
今夕相將遊勝地	오늘 저녁 서로 함께 승경지를 노닐고자 하는데
百年方始悟迷津	백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나루를 헤매고 있음을 깨달았네.
琴樽密席蟾初上	금과 술잔, 가까이 한 자리에 銀蟾이 막 오르고
萍水他鄉鴈正賓	부평초 같은 타향살이에서 기러기는 바로 손님이구나.
醉興陶然談更劇	흥에 취해 도연해지니 말이 더욱 심해질사
酒中須信見天真	취중이야 비로소 천진을 볼 수 있음을 믿어야 하느니라. ⁵⁴⁾

金兌一이 임청각 시에 차운하여 이문약[李沃]에게 보낸 작품이다. 이 시는 노년의 여유 속에서 우정과 인생을 되새기며, 세속의 무게를 벗고 순수한 天真에 다가가려는 마음을 절절히 담고 있다. 전반부는 오랜 세월에 걸친 깊은 우정은 막 시작한 인연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말한다. ‘豈如新’은 ‘어찌 새로운 것과 같으랴.’는 반어적 표현으로 우정의 무게감을 드러내고 있다. 김태일은 친구와 함께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풍경으로 단순한 유람이 아니라, 마음의 교감을 나누는 자리임을 드러낸다. 그리고 살아온 모든 시간이 결국 ‘迷津’이었음을 회고하고 있다.

54) 金兌一, 『蘆洲集』 卷2, 「次臨清閣韻。贈李參判文若」: 『한국문집총간』 43, 131 쪽.

후반부는 풍류를 상징하는 거문고와 술, 그리고 달은 밤의 운치를 더해 주고 있다. 끝으로 도연명처럼 세속을 벗고 자유로이 즐기는 상태와 술에 취한 상태가 오히려 인간 본연의 순수함[天真]을 드러낸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이 시는 단순한 회포가 아니라, 세월로 다져진 우정의 귀중함, 자연과 술자리에서 자유, 삶의 끝자락에서 얻는 깨달음과 삶의 본질 등을 담고자 한 작품이다.

共惜春將暮 함께 봄이 지나가려는 것이 아쉬워
 登臨舉一杯 한 잔 술을 들고 올랐다네.
 杏花疎竹映 살구꽃은 성글게 대나무에 비치고
 沙水茂林廻 모래톱의 물은 무성한 숲은 돌아가네.
 南寺暮鍾定 남쪽 절에는 저녁 종이 머무르고
 東臺夜月來 동쪽 대에는 야밤 달이 찾아오는구나.
 酒闌人又散 술자리 파하자 사람들도 흩어지니
 心地靜無埃 마음의 경지는 고요히 티끌이 없구나.⁵⁵⁾

이 시는 文敬叟이 늦은 봄에 벗과 함께 부취루에 올라 지은 작품이다. 봄의 끝자락에서 느끼는 아쉬움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고요해진 마음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전반부는 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그 아쉬움을 친구들과 자연을 벗삼아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여유로운 장면을 그리고 있다. 후반부에서는 저녁이 되어 고요히 울려 퍼지는 종소리, 시간의 흐름을 느끼고, 밤이 되어 달빛이 비추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한다. 끝으로 술자리가 끝난 후, 자연과 함께하며 마음이 평온하고 깨끗한 상태임을 표현하고 마무리한다. 이는 술자리에서 오른 ‘흥’이 고조된 끝에 심신이 고요함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준다.

종합해보면 공적 누정은 행정의 무대를 넘어 수령, 문인, 백성이 함께하는 공공의 장소로 작동하였다. 이러한 공공의 장소를 문학으로 드러

55) 文敬叟, 『滄溪集』 卷3, 「暮春與友登龍宮浮翠樓」: 『한국문집총간』 1, 425쪽.

내는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은 ‘흥’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적 공간에서의 ‘흥’은 공적인 긴장감을 풀어주고 공동체의 결속을 만들어 내는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2) 사적 공간

용궁 지역의 사적 누정시는 공적 공간에서의 피로와 감정의 전환을 벗어나, 한 개인의 은거와 교유, 자기 성찰과 인물의 회상을 담은 내밀한 서정을 담고 있다. 공적 누정이 행정과 공동체적 경험을 매개하는 열린 장소였다면, 사적 누정은 보다 내밀한 방식으로 인물의 품격과 풍류를 기념하고 후대에 전승하는 기억의 장소로 기능하였다. 특히 용궁 지역의 사적 누정시에는 공간을 창건한 주인의 인격을 예찬하거나, 선현의 삶과 풍류를 되새기며 그 전통을 이어가려는 의식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또한 문인이 세속으로부터 벗어나 ‘돌아갈 자리’로 인식하는 장소이다.

(1) 선현에 대한 경의와 ‘承’의 의식

본 절에서는 선현의 고결한 인품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시편들을 중심으로, 사적 누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용궁 지역의 사적 누정은 단순한 정자나 은일의 공간을 넘어, 선현의 인격과 풍류를 기리고 후대에 전승하는 기억의 장소로 기능하였다. 누정이라는 구체적 공간은 자연과 경물, 사람의 이미지를 결합하며, 특정 인물의 도덕성과 품격을 재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래의 작품들 역시 누정을 매개로 하여 선현의 고결한 인격을 호명하고, 그 풍류를 후대가 계승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먼저 청원정을 읊은 작품을 살펴보기로 하자.

聞道幽居作小塘 들으니, 그윽히 거처에 작은 못을 만들어
花中君子發天香 꽃 중의 군자인 연꽃이 천연향을 풍긴다지.
可憐植物清如許 어여빠라! 식물이 이처럼 청정하여

曾對高人映霽光 일찍이 고상한 사람을 만나 光風霽月 비춘 적이 있음이.

光霽高懷百世風 광풍제월의 고매한 마음은 백세의 풍모요
 淸通嘉植一塘中 청하하고 아름다운 꽃을 못 가운데 심었네.
 洗心洗眼來看處 마음과 눈을 씻고 와서 이곳을 본다면
 宛見當時無極翁 완연히 당시의 무극옹을 만나리.⁵⁶⁾

李滉이 청원정을 지은 작품이다. 전반부는 청원정이 ‘은거의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간 자체가 속세를 끊은 선택의 결과임을 밝힌다. 시에서 ‘花中君子’는 연꽃, 즉 청정하면서도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인물의 상징이다. 연꽃의 맑음은 단지 식물적 특성이 아니라, 高人の 품격과 교감한 풍경이라는 점에서 인물-풍경-공간의 일체성을 암시하고 있다.

후반부는 누정과 연결된 이상적인 인물을 드러내고 있다. 고매한 성정은 하늘가 갠 뒤 드러나는 ‘光’과 같고, 이는 백세를 전하는 풍조가 된다. 연꽃은 단지 수면 위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淸通’이라는 이미지로 자리 잡는다. 끝으로 누정을 방문한 이가 마음과 눈을 씻고 연못을 응시하면, 그 속에서 마치 당시의 무극옹과 청원정의 주인을 다시 만나듯 한다고 표현한다. 이황은 청원정이라는 공간을 도덕과 이상 인격의 재현 장소로 해석하고 있다. 연못과 연꽃, 맑은 향기와 고결한 인품은 단순한 자연 묘사가 아니라, 청정한 공간과 고결한 주인을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聞說君家占地靈 듣자하니 그대의 집안에서 신령스런 땅을 점지하였다
 더니,
 碧溪青嶂繞園亭 푸른 내와 푸른 봉우리가 원정을 빙 둘러구나.
 自嗟老病無由見 노병으로 볼 길이 없어 홀로 탄식하며,
 將和題詩卻且停 화답하는 시를 지어 물리치고 머무르고자 한다네.⁵⁷⁾

56) 李滉, 『退溪集』 卷4, 「寄題淸遠亭 二首」: 『한국문집총간』 29, 138쪽.

57) 李滉, 『退溪集』 卷5 續內集, 「映蓮堂」: 『한국문집총간』 29, 164쪽.

李滉이 영련당을 읊은 작품이다. 영련당은 손纘이 축조한 정자이다. 이황이 병중에 타인의 정자와 그 경관에 대해 소문만을 듣고서 직접 체험하지 못한 공간에 대한 내면적 상상을 통해 창작하고 있다. 정자를 비단 병풍처럼 둘러 있는 푸른 숲을 벗 삼아 여러 회원이 모여 시사회를 열어 즐기고 있을 것이다. 서로 지은 시를 읊으며 감상에 젖어 즐기는 모습이 느껴지는 상상을 하고 있다. 이는 타인의 정자를 매개로, 교유와 문학으로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鄭琢이 영련당 시에 차운하여 지은 작품이다.

下有蓮池上有堂	아래에 연못 있고 위에는 당이 있으니
此間真趣浩無量	이 사이의 참된 정취 커서 한량이 없네.
芙蓉五月天香藹	오월 연꽃은 맑은 향기 짙게 풍기고
枕席三更客夢長	한밤중 잠자리엔 나그네의 꿈 길구나.
日照梅兄供瘦影	매형에 해 비치니 여윈 그림자 드리우고
風敲竹弟奏韶章	죽제에 바람 부니 소장을 연주하는 듯하네.
當時已有難言妙	당시에 이미 형언 못할 묘리 있었으니
誰煥清文助上樑	누가 맑은 글 지어 상량을 도왔을까.

翠葆紅幢蔭一堂	푸른 잎 붉은 꽃이 온 당을 덮었으니
濂翁千古便思量	먼 옛날 염옹이 문득 한없이 생각나네.
臨軒喫了香如許	난간에서 흠뻑 피우니 그리도 향기로운고
和月看來意更長	달과 함께 보고 오니 생각 다시 길어지네.
雨裏艷濃如活畫	빗속에 농염하니 살아 있는 그림 같고
霜前憔悴入騷章	서리 앞에 시들어서 소장에 들 만하네.
憑誰借得龍眠手	누구에게 의탁해 용면의 솜씨를 빌려다
移向鳩巢畫壁樑	구소에 옮겨와 벽과 들보에 그렸는가. ⁵⁸⁾

이 시는 ‘暎蓮堂’이라는 연못 위 누정을 배경으로 두 수의 칠언율시

58) 鄭琢, 『藥圃集』 卷1 續集, 「次暎蓮堂韻 [堂在竺山佳野]: 『한국문집총간』 39, 569쪽.

로 구성되어 있다. 시어를 살펴보면 ‘梅兄’과 ‘竹弟’는 곧 매화와 대를 마치 형제처럼 친근하게 여겨 애칭으로 쓴 말이다. ‘韶章’은 순임금이 지었다는 음악을 말한다. ‘염옹’은 송나라 학자로 호가 濂溪인 周敦頤를 가리킨다. 그가 일찍이 「애련설」을 지어 연꽃을 예찬했기 때문에 한 말이다. ‘騷章’은 屈原이 지은 『離騷經』을 말한다. 굴원이 회왕 때 삼려대부가 되어 국정을 행하였는데, 다른 대부의 시기를 받고 떡라수에 투신하였다. 여기서는 연꽃이 『이소경』에 들어 있다는 말이다. ‘龍眠’은 송나라 때의 화가로 호가 용면거사인 李公麟을 가리킨다. ‘鳩巢’는 영성한 비둘기 집인데, 여기서는 영련당을 일컬어 한 말이다.

제1수에서는 ‘下有’와 ‘上有’를 병치하여 연못과 영련당이 결합된 공간임을 보여주고 있다. 매화와 대나무는 문인들에게 빠지지 않는 소재이다. 이러한 소재는 누정 공간의 품격과 감응을 배가시킨다. 자신의 감흥을 용면의 손에 빌려 그림으로 남기고자 하는 열망을 표출하고 있다. 누정이 단순한 은거의 무대가 아닌 이 공간을 통해 자신과 자연, 과거와 현재, 감정과 예술이 결합되는 장소로 읽힌다.

이와같이 누정의 주인에 대한 칭송, 회상하는 장소, 그리고 다양한 소재 사이에 호응이 겹쳐지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간에서 문인은 자기를 돌아보고, 인물을 기억하며, 시를 통해 마음을 형상화하고 있다.

爾祖風流慕向平	그대 선조 풍류는 상평을 사모하더니
雲孫此地學佃耕	후손들이 이곳에서 농사를 배우는구나.
媿無詩酒供幽思	부끄럽게도 시와 술로 그윽한 사색을 줄 수 없지만
便擬雞豚託社盟	그저 닭과 돼지로 사맹에 의탁할까 하네.
四面雲山俱是樂	사면에 구름 산 모두 즐거움이 되고
百年圖史有餘清	백년의 그림과 역사에는 맑음이 넉넉히 남아 있네.
憑君欲說田園趣	그대에게 의지하여 전원의 흥취를 말하려 하니
不覺宵分僕屢更	나도 모르게 밤늦도록 하인을 자주 바꾸었네. ⁵⁹⁾

홍여하가 梅竹軒을 읊은 작품이다. 軒의 주인의 조상은 풍류를 즐기며 은일한 선비처럼 살고자 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 후손 역시 이곳에서 농사를 배우니, 은일과 농경이 세대를 이어 구현되는 모습이 드러내고 있다. 홍여하는 스스로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도, 소박한 공동체에 참여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 이어서 사방의 산이 곧 즐거움이자 유람처가 됨을 밝히고 있다. 이 생활은 단순한 소요가 아니라, 후대의 기록 속에서도 맑고 청정한 것으로 기억될 것이라는 자부심을 말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원 생활의 흥취를 나누려다가 밤이 깊어 시종이 몇 번이고 교대로 등불을 지필 정도가 되었다고 말한다. 이는 교유와 전원에서의 즐거움을 드러낸 것이며, 또한 전원적 삶을 후대까지 이어가는 전통 계승의 의미가 읽힌다.

사적 누정시는 단순한 풍류의 무대가 아니라, 선현의 인격과 풍류를 기리고 후대에 전승하는 공간으로 드러났다. 청원정, 영련당, 매죽헌 등은 자연과 공간과 인물의 상징성을 지니며, 개인의 서정을 공동체의 기억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으며, 지역 사회에서 선현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전통을 계승하는 역할을 하였다.

(2) 자연 감흥과 ‘歸處’의 인식

好是春江上 아름다운 이 봄 강가
垂楊映碧波 늘어진 수양버들은 푸른 물결에 비치구나.
相攜一樽酒 한 동이의 술을 서로 맞잡고
對酌興如何 술잔을 마주하니 흥취가 어떠한가.⁶⁰⁾

高尚顏이 청원정을 찾고서 지은 작품이다. 봄 강, 늘어진 수양버들 등 시각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봄이라는 시간성과 수양버들, 강물이라는 공간성이 교차하며 아름다움의 순간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구절은

59) 『축산승람』, (한국국학진흥원, 영남사, 2018), 100쪽.

60) 高尚顏, 『泰村集』 卷1, 「到淸遠亭, 邀尹士淵, 全菊坡諱元發亭」: 『한국문집총간』 59, 211쪽.

이 술자리가 얼마나 깊고 즐거운지를 되묻는 형식으로 감정을 고양시키고 있다. 고상안은 교유와 자연 감상, 술의 향기가 어우러진 詩情을 직설적이며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감흥이 아니라, 자연과 교유가 결합된 공동 향유의 공간을 드러낸 것이다. 아래 시는 삼의 정을 읊은 작품으로 高必遠이 지은 원운시이다.

何物畸翁白髮長	백발 긴 기이한 노인은 어떤 사람인가
大東天地自疏狂	대동 천지에서 스스로 소광하다네.
心遊太極圖雙轅	마음은 태극도 두 줄기에 노닐고
迹謝邯鄲夢一場	족적은 한바탕 한단몽을 양보하였네.
明月多情從我蔡	명월은 정이 많아 채에서 나를 따르는 듯하고
淸風拂檻起子商	청풍이 난간에 불어오니 나를 일으키는 상이구나.
無人會得閒中趣	한가함 속에 흥취를 얻음을 이해할 이 없으니
呼馬呼牛也不妨	말이라 부르고 소라 부른들 무슨 문제랴. ⁶¹⁾

작품의 전반부는 ‘畸翁’이라 자칭하며 세속과 거리를 둔 삶을 드러내며, 특히 ‘疏狂’을 통해 사회적 틀을 벗어난 당당함을 표현한다. 이어서 몸은 속세에 있지만 마음은 태극에 있음을 밝히는데 이는 고필원의 정신적 지향을 알 수 있다. 동시에 행적은 세속의 가치, 즉 부귀와 권력 명예와 출세 등을 끊는 삶을 말하고 있다. 후반부는 세속에서 떨어진 삶일지라도 명월이 진채의 공자에게서처럼 자신과 같이 하고 있음을 말한다. 이어서 청풍이 공자의 제자 자하가 보여준 시를 말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하듯 자신도 그렇게 이르게 됨을 그려내고 있다. 시어 ‘蔡’는 ‘陳蔡’의 전고이다. 공자가 “陳蔡에서 나를 따랐던 제자들이 지금은 모두 문하에 있지 않다”라고 한 데서 유래한 표현이다. ‘商’은 공자의 제자 자하를 말한다. 공자가 “나를 일으킨 자는 상[子夏]이다. 이 제야 함께 詩를 말할 만하구나.”라는 구절을 인용하였다.

61) 『축산승람』, (한국국학진흥원, 영남사, 2018), 87-88쪽.

그는 마지막으로 ‘閒中趣’라고 하여 한가로움 속의 정취를 이해 못하는 세상에 대해 토로하고 있다. 끝내는 ‘나를 소라 하든 말이라 하든 상관없다.’는 사회적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 자세를 보여준다. 즉 세속으로부터 벗어난 한가로운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3-1장 “공무의 긴장과 ‘閑’의 정서”에서 도출한 한가로움은 공무와 같은 긴장 속에 휴식을 뜻하지만, 사적 공간에서의 한가로움은 자기의 거처이며 삶의 방식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래 작품은 權渠가 삼의정 시에 차운한 것이다.

髮短斯翁心苦長	머리카락 짧은 이 늙은이 마음은 몹시도 깊으며
悲吟半世任顛狂	슬프게 읊은 반평생, 광태에 맡겼구나.
遊神物外清涼界	신이한 물외의 청량한 세계에 노닐면서
寄跡人間鬧熱場	행적은 인간 세상 번잡한 곳에 부쳤다네
詩爲散愁抽妙句	시는 근심이 풀리게 하고 오묘한 구절 뽑아내며,
曲因多興發清商	곡조는 흥이 많기에 청상곡을 일으키는구나
看君意氣難拘束	그대의 의기를 보니 구속하기 어려워
爛醉生涯亦不妨	거나하게 취한 생애, 방해하지 말지니. ⁶²⁾

권구는 스스로를 ‘髮短翁’이라 칭하면서 대비적으로 ‘心苦長’이라 하여 短과 長을 통해苦心의 깊이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대비적인 시상은 다음 두 구절에 이어진다. 제3구와 제4구의 대비적 구절에서 정신은 물외에 있으나, 육신은 여전히 변화한 세상 속에 있음을 밝힌다. 권구는 이러한 갈등과 혼란을 풀어내는 도구가 바로 시임을 밝히고 있는데, 특히 ‘抽妙句’와 ‘清商’에서 갈등을 해소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시가 단순한 창작이 아니라, 슬픔을 해소하고 정서를 전환하는 행위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슬픔을 잊고자 그가 선택했던 취한 생애는 세속 안에서 초탈을 지향하는 자세로 읽힌다. 권구의

62) 權渠, 『屏谷集』續集 卷1, 「次贈高致伯 必遠 三宜亭韻」: 『한국문집총간』 188, 196쪽.

시는 앞의 고필원의 원운시와 각각 독립적인 시세계를 지니면서도, 동일한 韻字와 칠언율시의 형식을 공유함으로써, 시적 변화와 정신의 확장이 이루어진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이요정을 읊은 작품이다.

飛鳳高鶩洛水頭	나는 봉황은 높이 치솟아 낙수 끝에 이르고
一江形勝此爲優	한 줄기 강의 형승은 이것을 넉넉함으로 삼네.
五湖自有陶朱興	오호는 절로 도주공의 흥취가 있으니
六印寧須季子遊	육인은 어찌 계자의 노닐이 필요하랴.
駟馬高車何日到	사마의 고상한 수레는 어느 날에 이르며
白沙芳草去年愁	백사의 방초는 지난 해를 시름이라.
天門鬼守黃金少	천문은 괴심이 지켜 황금으로도 적으니
歸向烟波上小舟	안개와 물결 위 작은 배 타고 돌아가리라. ⁶³⁾

이 시는 尹新之가 二樂亭을 배경으로, 벼슬살이의 피로, 자연 경관에 대한 심취, 그리고 은거적 태도를 봉황과 범려, 계자 등의 인물을 차용하여 은유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제2구에서 그가 표현한 ‘形勝’은 단순한 경관이 아니라 정신적 안식처로 읽힌다. 이어서 인물을 제시하여 자신의 지향을 밝히고 있다. ‘도주공’은 범려로, 정치에서 물러나 상업과 은거에 성공한 인물이며, ‘계자’는 전국 시대 六國을 두루 다니면서 유세한 蘇秦의 자이다. 윤신지는 도주공을 통해 은거에 대한 정당화를 강조하면서도, 계자의 방랑은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벼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를 표현하고 있으며, 지난 세월에 대한 상처를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黃金少’를 통해 세속적 가치를 지키려는 어리석음을 풍자하고, 작은 배를 타고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 자연으로 회귀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윤신지는 이요정의 풍광 속에서 벼슬길의 의미를 반추하고, 권력을 내려놓고 자연과 감응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小舟’의 이미지에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63) 尹新之, 『玄洲集』 卷6, 「次二樂亭韻」: 『한국문집총간』 188, 196쪽.

年來憂患白渾頭	지난 몇해의 우환으로 온통 머리가 백발이고
偶此登臨興自優	우연히 이곳을 올라보니 흥취에 절로 여유롭구나.
十載相逢瞪碧眼	십년을 서로 만나면서 벽안에 눈을 부라리니
一場如夢做佳遊	아름다운 유람을 하니 한바탕 꿈만 같았네.
霜楓照水供詩料	서리 맞은 단풍이 물에 비춰주어 시상을 주고
山雨添波剩客愁	산비는 물결에 더해 객의 근심을 더해주는구나.
入夜雲烟簷外宿	밤이 되니 구름 안개는 처마 저편에 잠들고
遠洲漁火獨明舟	먼 물가 고기잡이 불, 유독 배만 밝구나. ⁶⁴⁾

이 시는 金宇宏이 이요정에서 머물며 지은 한시로, 현실적 고단함과 자연 속 위안, 그리고 교유 공간으로서의 누정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먼저 우환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 피로를 드러내지만 누정에 오르면서 심리적 위로와 시적 전환을 일으킨다. 김우평은 이요정을 비롯한 유람에 대해 꿈만 같다는 표현으로 그 귀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유람 중에 만난 자연은 시상을 주고 있었다. 그 자연은 때론 근심을 주기도 하고 그림 같은 풍경을 주기도 하였다. 삶에서 만난 근심과 걱정이 이요정을 만나는 뒤 일상의 평온함을 얻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누정이 단지 풍류의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심회를 읊겨가는 통로라는 사실을 문학이 입증해 주고 있다. 또한 3-2장에서 “공공의 장과 ‘興’의 감발”의 ‘흥’은 공적인 긴장감을 풀어주고 공동체의 결속을 만들어 주는 흥이라면 사적 공간의 ‘흥’은 수양, 자득에서 오는 삶의 감흥이라 할 수 있다.

용궁 지역의 사적 누정시는 공간을 중심으로 선현의 인격을 기리는 전승의 문학과 자연을 통해 느끼는 흥취와 귀처로서의 문학이라는 두 흐름이 교차하며 형성되었다. 청원정, 영련당, 매죽헌은 지역 사회가 공유하는 도덕적 기억의 장으로 기능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사적 누정은 자연 감상과 교유를 통하여 문인의 내면을 환기시키고, 정서적 안식처

64) 金宇宏. 『開巖集』 卷1, 「題二樂亭」: 『한국문집총간』 3, 292쪽.

가 되었다. 결국 용궁의 사적 누정시는 기억의 전승과 누정을 귀처로 삼는 등 여러 층위가 한 공간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4. 나가며

본고는 예천 용궁 지역의 누정과 누정시를 대상으로 『축산승람』과 『예천누정록』을 비롯한 관련 문헌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이 지역 누정은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이라는 두 축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공통적으로 시문 창작의 장소라는 공통된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결론을 삼고자 한다.

첫째, 본고에서 분석한 閑의 정서는 일반적인 산림 은일의 고립된 정서와 달리, 영남의 주요 수계가 합류하고 교차하는 용궁의 지리적 개방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특히 용궁의 물리적 풍광이 시각화되면서, 작가의 심경을 투영하는 구체적 매개로 작동하고 있다.

둘째, 용궁 누정시에서 나타나는 承의 의식은 단순한 선현 숭배를 넘어, 안동과 상주의 이황 학맥 등이 교차하며 형성된 학문적 공감대의 산물이었다. 누정은 이들이 이동 중에 잠시 머물며 서로의 학문적 지향을 확인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용궁 누정시만의 차운문화로 이어진 것이다.

셋째, 용궁 누정시의 興은 원운이 지닌 시각적 이미지를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당대 영남 사족의 향촌 지배 구조 속에서 각 가문이 지닌 사회적 위상을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이는 보편적인 흥취가 아니라 용궁이라는 특정 공간의 시적 전통이 축적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 것이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용궁 지역의 누정은 단순한 경관 장식이나 풍류의 장소가 아니었다. 공적 공간은 교류와 정치적 성찰을, 사적 공간은

기억과 은일을 담아내면서, 중층적으로 이루어진 문학적 장소였음을 알 수 있다. 원운과 차운의 연결, 세대적 전승, 교유와 소통의 양상은 누정과 누정시가 지역 한문학의 생산에 핵심 무대였음을 보여준다.

끝으로 본 연구는 지역 문학의 심층적 고찰은 물론, 공간과 문학의 관계를 탐색하는 기초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다만 본고에서 예천 용궁 지역의 누정과 누정 관련 작품을 모두 수용하여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추후 현지 조사와 자료 보안을 통해 이 연구를 더욱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타지역, 즉 안동·상주·문경 등 인접 권역의 누정시를 대상으로 대조하는 방식이 유효하다. 이 비교를 통해 용궁 누정시를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姜渾, 『木溪逸稿』; 『한국문집총간』17.
高尚顔, 『泰村集』; 『한국문집총간』59.
權渠, 『屏谷集』; 『한국문집총간』188.
權近, 『陽村集』; 『한국문집총간』31.
金守溫, 『拭疣集』; 『한국문집총간』9.
金宇宏, 『開巖集』; 『한국문집총간』3.
金兌一, 『蘆洲集』; 『한국문집총간』43.
徐居正, 『四佳集補遺』; 『한국문집총간』11.
尹新之, 『玄洲集』; 『한국문집총간』188.
李滉, 『退溪集別集』; 『한국문집총간』31.
李惟禕, 『孤山集』; 『한국문집총간』126.
文敬全, 『滄溪集』; 『한국문집총간』1.
鄭允穆, 『淸風子集』; 『한국문집총간』17.
鄭琢, 『藥圃集』; 『한국문집총간』39.
黃俊良, 『錦溪集』; 『한국문집총간』37.
洪貴達, 『虛白亭集』; 『한국문집총간』14.
洪聖民, 『拙翁集』; 『한국문집총간』46. 『민주중보』, 『부산신문』,
『新增東國輿地勝覽』, 한국고전종합DB.

2. 단행본

- 『箕川書院誌』,箕川書院, 2006.
김중배, 『예천누정록』, 예천문화원, 예일출판사, 2010.
권경열·최연숙 역, 『축산승람』, 한국국학진흥원, 영남사, 2018.

計成 저, 김성우·안대회 역, 『園治』, 예경, 1993,

3. 논문

박종우, 「16세기 누정의 공간적 특성과 누정제영의 문학사적 의미」, 『우리어문연구』 32, 우리어문학회, 255-284쪽

박순선, 「16세기 樓亭詩의 心像研究」,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이종묵, 「한시 분석의 틀로서 虛와 實의 문제 - 조선 전기 ‘누정시’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27, 한국한문학회, 2001. 5-30쪽

최금자, 「예천읍지 『筵山勝覽』에 소재한 漢詩와 그 성격」, 『동양한문학연구』66, 동양한문학회, 2023. 311-348쪽

황위주, 「예천지역의 퇴계학맥」, 『퇴계학과 유교문화』 28,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0. 113-148쪽

<Abstract>

A Study on the Pavilions and Pavilion Poetry of
Yonggung in Yecheon*:
Focusing on Literary Works from Successive Periods

Choi, Geum-Ja**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avilion culture (nujŏng, 樓亭) of Yonggung in Yecheon County, Gyeongsangbuk-do, focusing primarily on the Joseon period. By compiling and examining materials from Chuksansŭngnam(『축산승람』), Yecheon Nujeongnok(『예천누정록』), and poetic works preserved in the Korean Classics Comprehensive Database, the research identifies fifty-four pavilions and analyzes their spatial characteristics and associated literary texts. Based on their builders, locations, and social functions, the pavilions are classified into public and private spaces, and the poetic production unique to each type is examined.

The findings indicate that public pavilions—those attached to county offices and guesthouses—repeatedly foreground the affect of han(閑), a momentary leisure obtained amid the pressures of official duty. Local magistrates, visiting officials, and regional literati expressed this sentiment through yuan-yun and ci-yun(original rhyme and rhyme-matching), forming a literary network centered on structures such a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3S1A5B5A17087909)

** Lecturer, Department of Sino-Korean Classics Pusan National University.

Buchwiru, Suwöllu, and Imcheonggak. These rhymed exchanges reveal that public pavilions functioned not merely as administrative sites but also as loci of communication, sociability, and literary cohesion.

Private pavilions, built for residence, reading, reclusion, or convivial gatherings among local gentry, display a different literary orientation. Works associated with Cheongwŏnjŏng, Yŏngryŏndang, and Maejukheon emphasize the moral character and cultural legacy of former owners, highlighting intergenerational continuity. Poems on Samŭijŏng and Iyŏjŏng, by contrast, focus on aesthetic delight, emotional retreat, and the perception of nature as a place of return. Across these sites, the widespread use of yuan-yunand ci-yunfurther demonstrates the operation of a literati network even within private spatial contexts.

Overall, the pavilion culture of Yonggung emerges not as a mere assemblage of scenic structures but as a multilayered literary landscape in which public and private spaces generate distinct yet interconnected modes of poetic production. This study provides fundamental groundwork for understanding regional literati culture and contributes to broader discuss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lace and literature in premodern Korea.

Key Words: Yecheon, Yonggung, Pavilion, Hanmun Literature, Chuksanseungnam, Pavilion Poetry.

■ 논문접수 : 2026년 02월 27일

■ 심사완료 : 2026년 04월 11일

■ 게재확정 : 2026년 04월 15일

